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8월 25일(음력7월 10일) 수요일 (주간) 제488호

서울 · 충청 지역

국보급 석조문화재

# 이끼 끼고 금 가고 기우뚱

## 문화재보존과학회, 23점 '위험 판정'

## 당국, 예산부족으로 정밀진단조차 못해

서울과 충남 · 북 석조문화재의 상당수가 자연적 요인으로 훼손돼 포괄적인 보존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회장 김은영)가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서울과 충 · 남북 석조문화재 111건의 보존 실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석조문화재 보존관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산 마애삼존불, 관촉사 석등, 정림사지 5층 석탑 등 23건이 풍화상태, 생물(이끼류 등)분포, 또는 구조안정성에서 위험수준의 판정을 받아 보존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보 제84호 서산 마애삼존불은 암벽 균열에 의한 붕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8월 16일에 찾은 서산 마애삼존불은 본존불 머리상과 광배 사이에 ∩자형의 균열이 나 있었고, 본존불과 오른쪽(보는 이 기준) 반가사유상의 광배 오른편에서도 가로방향의 균열을 육안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우측 하단부에는 크고 작은 균열이 보였다. 목격자에 의하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틈으로 물이 콸콸 흘러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본존불과 왼쪽 보살입상의 광배 위쪽으로부터 아래 방향으로 보이는 백화현상으로 보살입상의 얼굴 부분이 거의 허옇게 변했을 정도였다. 백화현상은 마애삼존불을 보호할 목적으로 1962년 보호각을 건립하면서 사용한 콘크리트 또는 석재가 함유한 칼슘 등의 성분이 빗물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나타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보호각 위편 암석들의 균열이었다. 조사에 참여했던 이찬희 공주대 교수는 "상단부 균열에 움직임의 흔적이 있다"며 "센서를 부착해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축적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못지않게 구조상 문제가 심각한 석조문화재는 보물 제232호 관촉사 석등이다. 기울어짐이 확연해, 균형을 잡고 서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이 석등은 화사대와 옥개석을 연결하는 네 개의 돌기둥

백화현상으로 얼룩진 서산 마애삼존불의 왼쪽 보살 입상은 얼굴 부분이 허옇게 변했다.

옥개부가 이끼류의 서식처가 되고 검게 변해버린 국보 정림사지5층석탑(위)과 관촉사 은진미륵 손부분에 나타난 균열과 백화현상.

S자형으로 기울어진 관촉사 석등(보물 232호)은 곧 쓰러질 것 같이 위태로워 보인다.

(화사석) 중 일부가 기울어져, 화사대와 옥개석이 평행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아래쪽의 원주형 간석도 기울어져 전체적으로 석등이 S자 모양을 띠고 있었다. 다행히도 문화재청과 논산시는 이 석등의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현재 안전진단 중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통해 변형의 원인을 파악한 후, 해체 범위와 방식을 결정하고 연말 이후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석등의 뒤편에 있는, 은진 미륵으로 잘 알려진 보물 제218호 미륵보살입상의 앞뒷면에는 수직방향으로 균열이 길게 나 있었으며, 측면의 시멘트로 때운 아래쪽에 백화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균열부로는 물이 스며 나온 흔적이 있어서 미륵보살입상 내부에도 균열이 있어 물이 지나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논산시는 이 미륵보살입상 정밀실측을 위해 문화재청에 사업비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이와 같이 훼손 상태가 심각한 석조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보존 조치가 무엇인지 확정하면, 시 · 군에 통보해 예산신청 하게 해서 2005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래된 석조문화재들이 기상 · 지질 · 생물학적 요인에 노출돼 있는 한 더욱 훼손되고 악화될 것이 뻔한 상황이고 보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철저한 과학 · 기술적 조치와 행정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분한 예산확보가 관건임은 말할 것도 없다. 김수진 전 서울대 교수는 "4년째 진행된 석조지정문화재 조사를 통해 훼손상태가 많이 밝혀졌지만, 정작 그에 대한 정밀진단은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관련 예산 확보가 선행되지 않고는 제대로 된 문화재 보존 ·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글=박익순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정부 · 고속철공단 자성촉구

### 지율 스님 단식 중단 당부

조계종은 8월 20일 대변인 여연스님(종무원 기획실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 당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수행자가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는 위급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에만 눈먼 공단의 자성"을 요구했다. 또 지율스님에 대해서는 "단식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3면 조용수 기자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 100년 안목으로 '영축도량' 가꾼다

## 통도사, '불사 마스터플랜' 전문가에 의뢰

100년 후 영축총림 통도사와 산내 암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 궁금증은 현재 통도사(주지 현문)가 각 분야 전문가 10명에게 의뢰 작성중인 '통도사 불사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면 어느 정도 풀리게 된다.

통도사는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통도사 장기 불사의 큰 틀을 짜기 위해 2년 계획으로 불사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임회에 상정,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통과된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해 연구팀은 연구용역을 위한 기초 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연구 작업에 들어갔다.

이 같은 통도사의 불사 계획 수립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불사로 야기되는 환경파괴나 조화롭지 못한 가람배치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사찰 불사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주지의 성향에 따른 불사, 암자별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불사, 기능에 맞지 않게 진행되는 불사 등 비계획적인 불사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본사와 암자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불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학동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책임자로 구성된 장기 불사 마스터플랜 연구팀은 통도사의 입지형국,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한 친환경적 불사 진행, 미래 사찰 공간의 개념 변화에 따른 공간 통합을 위한 네트워크 마련 등을 포함한 장기 불사 청사진 만들기에 착수했다.

'통도사 불사 마스터플랜'에는 그동안 진행된 통도사 불사의 문제점과 개선점, 통도사 장기발전계획은 물론 불사 계획 지역 분석, 통도사 이용인구 및 이용 행태 분석, 본사와 암자의 기능성 고려 등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측면을 총망라한 불사 계획이 포함된다.

또한 영축산 전역을 대상으로 한 물리적 환경 분석과 각 암자별 불사까지 꼼꼼하게 살피게 되며, 향후 통도사가 새롭게 도입해야 할 도량 기능으로 불교영재학교를 제안하고, 새로운 포교시스템 구축을 위한 본사 말사, 암자간의 조화로운 협조 방안도 수립하게 된다. 불사계획은 수행, 포교, 도제 양성 기능까지도 적절히 고려해 수립하게 되며, 단계별 집행계획도 포함된다.

통도사는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면 임회에 상정, 의견 수렴 후 최종 마스터플랜을 확정, 향후 통도사 불사는 이 기본 틀에 입각해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산=천미희 기자

관련기사 5면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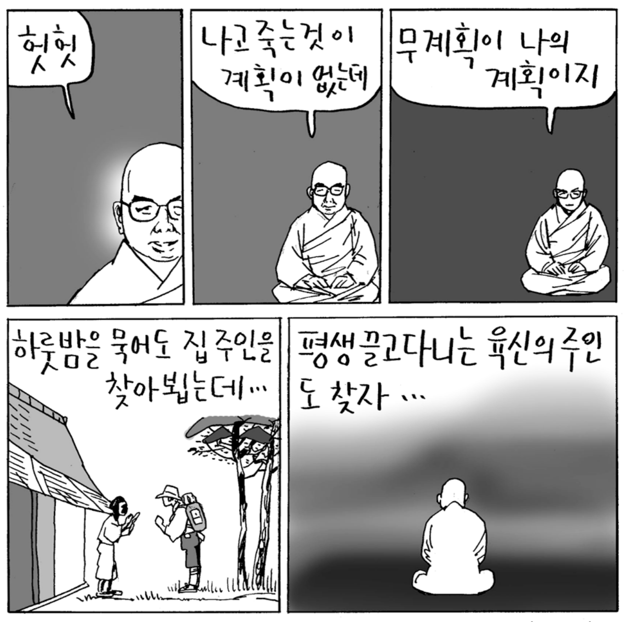

그림 · 조태호

원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현 · 성 · 스 · 님 · 의 · 진 · 솔 · 한 · 토 · 굴 · 일 · 기

왜 산에 사느냐고 묻거든

현성 스님은
1996년 충북 괴산 공림사(空林寺)로 출가했다.
그곳에서 탄성(呑星) 스님을 노스님으로 모시고 행자 생활을 했다. 그 해 계를 받고 이듬해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해서 2001년 졸업했다.
유한근 교수의 추천을 받아 1998년 계간 <포스트모던>에 소설 『미인암(美人巖)』으로 등단했다.
선객(禪客)으로 송광사, 운문암 등에서 참선 정진했다.
현재 강과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산 위의 절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다.

소박하고 정겨운 山생활의 충만함
자연 속에서 '참 나'를 깨달아가는 포근한 에세이!

"나무들은 사람들처럼 삶이 복잡하지 않다.
그들은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주위의 사물들에게 전파시킨다.
그들은 명상하는 수행자이며, 폭풍이 불 때는
온몸으로 맞서는 자유주의자이고 시인이며 수필가다.
나는 숲이 주는 힘에 고무되어 상쾌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오곤 한다.
참나무같이 반듯하고 크고 강인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숲은 나에게 그런 생각마저도 버리라고 한다.
무엇을 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다 나의 욕심일 것이다."
- <왜 산에 사느냐고 묻거든> 본문中에서 -

현성 지음 | 신국판 | 280쪽 | 9.000원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여시아문